

한화케미칼, 직원 승진 1년씩 늦춰

대리·과장·차장 승진연한 5년으로 ... 인력수급 안정이 주된 목표

한화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주)한화와 한화케미칼이 인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직원 승진 연한을 1년씩 늦췄다.

4월11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주)한화와 한화케미칼은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이 되는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한화케미칼은 대리에서 과장이 되는 연한도 5년으로 바꿨다.

따라서 (주)한화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승진 연한을 4년-4년-4년-4년에서 4년-4년-5년-5년이 됐고, 한화케미칼은 4년-5년-5년-5년이 됐다.

한화그룹은 관련사규를 2009년년 수정해 2010년 4월 초 승진 인사부터 적용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전 인력의 안정적인 조직의 안정을 위해 주력 계열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12>